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 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Type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s Clusters :
Focusing on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김미진¹

Mi Jin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aturally occurring parent groups form by using Schaefer's two axes of affection-rejection and autonomy-control, it also aim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ent group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A total of 201 kindergarten children between the age of 3 to 5 and their parents were given a questionnaire in order to investigate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teachers measured their peer competence. SPSS 18.0 was used and clustering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different parenting attitudes. The first fathers' group was named the lacking-affection group, the second was the democratic-reception group, the third was the ignorance group and the last was the rejection group. For mothers' groups, the first was named the rejection group, the second was the autonomous-control group and the third was the reception-respect group.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of each group had a considerable difference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peer competence. This study was dedicated in deriving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role of parents by investing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naturally occurring cluster.

¹ 제1저자(교신저자)

협성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e-mail : letskmj7@naver.com)

Key words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veness, Peer Competence

I. 서론

부모는 자녀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동안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희정, 2012). 특히 영·유아는 가정에서 주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지각과 정서, 감각, 기억, 기대 등을 포함하여 대상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그 대상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된다(김진숙, 2007). 정신 분석이론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후기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윤운성, 정정옥,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에 따라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Rohner, 1991). 이는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 자아개념 등 전반적인 유아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이영, 2014), 오랫동안 지속된 연구과제가 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30년 동안 연구하여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하였는데, 서로 대립되는 두 축의 4변인은 이후에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Baumrind(1971)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였는가에 대한 온정성과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얼마나 확고한 규칙과 기준을 가지는가에 관한 통제의 정도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에 Rohner(1991)는 애정적 태도와 수용차원의 온화함, 거부차원의 적개심, 공격성, 냉담, 무시, 일관적 거부의 양육태도로 나누었다가 수용, 거부 척도에 자녀의 통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부모 양육태도 분류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식(1976)이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로 구분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65)의 양육태도에 근거하여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 시켰다. 또한 최정혜(2015)는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에 의하여 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무관심적 양육태도로 유형화 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부모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유형에서만 분류되고 이해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부모특성에 따른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 4변인 중에서 애정적 태도만 낮거나, 반대로 애정적 태도만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에 분류된 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각 군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지금의 부모양육태도 군집을 분류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의 성격과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정서발달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Greengerg & Stephan, 1983). 유아는 부모의 정서표현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며, 상황에 맞는 정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3).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김송자, 2002).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의 표현양식으로 정서와 관련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인 패턴 혹은 스타일이다(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정서표현성은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성의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Parker, 2006; Halberstadt et al., 1995), 정서표현성의 정도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얼마만큼 자주 표현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정적·부적 정서표현성이 높다(한영민, 2005)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합리적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전효선, 201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결과(박소은, 남은영, 2010)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정/애정적인 양육태도의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반면에, 어머니가 공격적/적대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거부적일 때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희, 유연옥, 최성열, 2014).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과 관련된 정서표현성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정윤경과 박보은(2010)의 어머니 정서의 표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군집분석이 있는데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낼 때 자녀와 친밀감 높은 양육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은 높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에 대한 각각의 연구(김명숙, 2008; 박상임, 2014; 서혜린, 이영, 2008; 오지현, 2010;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 두 변인이 다른 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김경숙, 2015; 전혜경, 2014; 최주영, 2015; Demham,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양육태도 유형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연구대상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대하여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부모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의 정서표현과 함께 유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인은 또래 관계이다. 현대 사회는 취업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일찍부터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져서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래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즐거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유능감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이지희, 2008).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성공한 유아들은 대체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며, 타인의 감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을 잘 하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과 문제해결력이 증가한다(박지영, 강성단, 권영숙, 2010; Burlson & Kunkel, 2002; Hermann, 1997).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여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은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로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Asher, Renshaw, & Hymel, 1982)이다.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성향, 선생님의 역할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민선, 김진성, 2011; 문혁준, 2000; 이진희, 2013; Dekovic & Janssens, 1992)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면 유아의 사교성을 포함한 또래 유능성이 높지만,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 통제적 양육태도는 또래 거부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남숙, 2011; 이지원, 1999; Chen, Rubin, & Li, 1997).

이와 같이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에 의해 분류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연발생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따라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던 Schaefer(1959)의 어머니 양육행동 4가지 하위요인, 즉 애정적 태도(affectional attitude), 거부적 태도(rejecting attitude), 자율적 태도(autonomic attitude), 통제적 태도(controlling attitude)에 따라서 어떤 하위 집단들이 형성되는지 군집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까지의 부모 양육태도 유형은 다양한 특성들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높다 혹은 낮다로 측정하여, 각각 차원에서 부모특성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은 어렵다(조유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군집을 나누어 탐색하고, 나누어진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과 부모의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보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부모 양육태도 군집의 연구는 부모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의 정서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파주시 소재의 어린이집 2개, 유치원 3개, 서울시 소재의 어린이집 2개를 선정하여 만 3~5세 유아 460명과 그의 부모 920명, 유아의 담임교사 2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에 대한 질문지는 부모가 직접 평가하였고,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질문지는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예비조사는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에 걸쳐 파주시 어린이집 1개의 유아 3세 20명, 4세 20명, 5세 20명의 부모와 담임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수정,

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2015년 8월 27일에 걸쳐 대상의 부모에게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 질문지를 배부하고, 유아 460명의 담임교사에게 또래 유능성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26부(70.8%)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부모 모두 작성한 질문지 238부 중에 최종적으로 유효한 질문지 2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0.2%, 여아가 49.8% 이고, 연령은 만 3세가 18.9%, 만 4세가 44.3%, 만 5세가 36.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 연령은 만 36~39세(39.3%)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만 31~35세(39.8%)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7.0%,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가 28.4%, 대학교 졸업이 51.2%, 대학원 졸업이상인 13.4% 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11.4%,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가 35.3%, 대학교 졸업이 43.8%, 대학원 졸업이상인 9.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27.4%였으며 관리직과 판매/서비스업이 10.9%로 동등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주부가 62.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13.9%, 사무직이 10.4%, 기타 6.5%, 판매/서비스업, 생산직/시간제 근로자, 관리직은 3% 이하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01)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만 30세 이하	8(4.0%)	16(8.0%)
	만 31-35세	378(18.4%)	80(39.8%)
	만 36-39세	798(39.3%)	68(33.8%)
	만 40세 이상	778(38.3%)	37(18.4%)
학력	고졸 이하	14(7.0%)	23(11.4%)
	전문대 졸업/대학 중퇴	57(28.4%)	71(35.3%)
	대학교 졸업	103(51.2%)	88(43.8%)
	대학원 졸업 이상	27(13.4%)	19(9.5%)
직업	무직/주부	1(.5%)	126(62.7%)
	생산직/시간제 근로자	7(3.5%)	5(2.5%)
	판매/서비스업	22(10.9%)	6(3.0%)
	사무직	71(35.3%)	21(10.4%)
	관리직	22(10.9%)	2(1.0%)
	전문직	55(27.4%)	28(13.9%)
	기타	23(11.4%)	13(6.5%)
자녀 성별	남아	101(50.2%)	
	여아	100(49.8%)	
자녀 연령	만 3세	38(18.9%)	
	만 4세	89(44.3%)	
	만 5세	74(36.8%)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Beaker(1964)의 연구와 국내의 이원영(1983)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자율적 태도의 4가지 태도로 나누어지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은 총 48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애정적 태도는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도 자주 한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관한 12문항으로 되어 있고, 거부적 태도는 ‘나는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의 표현을 묻는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통제적 태도는 ‘나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한다고 생각 한다’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 등에 관한 12문항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 자율적 태도는 ‘나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편이다’와 같이 자녀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의 경우, 통제적 태도 Cronbach's $\alpha = .73$, 거부적 태도 Cronbach's $\alpha = .73$, 애정적 태도 Cronbach's $\alpha = .79$, 자율적 태도 Cronbach's $\alpha = .65$ 이다. 어머니의 경우, 통제적 태도 Cronbach's $\alpha = .65$, 거부적 태도 Cronbach's $\alpha = .73$, 애정적 태도 Cronbach's $\alpha = .81$, 자율적 태도 Cronbach's $\alpha = .63$ 이다.

2) 부모의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Halberstabt, Cassidy, Stifer, Parke 그리고 Fox(1995)가 제작한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한영민(2005)이 번역한 후 수정한 도구로써,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이다. 각 문항은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를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은 총 4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 일을 잘 했을 때 칭찬 한다’와 같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23문항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불만스러움을 표현 한다’와 같이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7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의 경우, 긍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alpha = .87$, 부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alpha = .82$,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alpha = .84$, 부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alpha = .78$ 이다.

3) 자녀의 또래 유능성

본 연구의 질문지는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신뢰도 검증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관한 질문은 각각 5문항으로 되어있고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사교성요인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친 사회성요인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성요인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윤정원, 2015). 본 연구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3요인을 합하여 전체 또래 유능성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전체 또래 유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유능성의 전체 점수의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 .92$ 이고, 사교성 Cronbach’s $\alpha = .91$, 친사회성 Cronbach’s $\alpha = .87$, 주도성 Cronbach’s $\alpha = .90$ 이다.

3. 조사절차

본 연구 자료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교사가 부모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의하는 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2015년 6월 19일부터 2015년 6월 2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도구의 타당성, 적합성을 알아보고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7월 16일부터 2015년 8월 27일에 걸쳐 선정된 대상의 부모에게 실시하였는데,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1차로 360명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중 상당수가 아버지 질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 질문지만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로 다른 유아보육기관의 유아 100명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460명의 유아와 그의 부모에게 시행하게 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기본경향을 살피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시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Wards의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이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기술통계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통제적 양육태도가 3.15점($SD = .46$), 거부적 양육태도가 2.45점($SD = .45$), 애정적 양육태도가 3.66점($SD = .44$), 그리고 자율적 양육태도가 3.45점($SD = .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통제적 양육태도가 3.24점($SD = .40$), 거부적 양육태도가 2.58점($SD = .40$), 애정적 양육태도가 3.79점($SD = .44$), 그리고 자율적 양육태도가 3.37점($SD = .35$)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점수들 간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거부적 양육태도 점수는 낮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중간 이상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은 3.48점($SD = .30$)이었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3.57점($SD = .25$)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서표현성은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또래 유능성은 3.38점($SD = .62$)로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일반적인 기술통계 (N = 201)

영역(척도 점수)	평균(M)	표준편차(SD)	
아버지의 양육태도(5점)	통제적 양육태도	3.15	.46
	거부적 양육태도	2.45	.45
	애정적 양육태도	3.66	.44
	자율적 양육태도	3.45	.34
어머니의 양육태도(5점)	통제적 양육태도	3.24	.40
	거부적 양육태도	2.58	.40
	애정적 양육태도	3.79	.44
	자율적 양육태도	3.37	.35
아버지 정서표현성(5점)	3.48	.30	
어머니 정서표현성(5점)	3.57	.25	
자녀의 또래 유능성(5점)	3.38	.62	

2.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화 분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각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1단계에서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여러 방법이 있으나 Wards의 공식이 가장 흔히 사용됨)을 먼저 실시한 후 ‘군집화 일정표 (agglomeration schedule)’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군집수를 정하고 이때 나온 각 군집변인들의 중심점(centroids 혹은 seed points)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1단계에서 정해진 군집 수를 바탕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대표적인 방법이 K-평균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군집의 중심점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1) 아버지 양육태도 군집화

아버지 양육태도의 군집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4가지 양육태도 점수를 이용하여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군집 1에는 62명(30.8%), 군집 2에는 57명(28.4%), 군집 3에는 36명(17.9%), 군집 4에는 46명(22.9%)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해 군집변인인 4개의 양육태도들 점수를 표준화하였고(평균 = 0, 표준편차 = ±1),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의 경우 통제적, 거부적, 자율적 태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애정적 태도는 낮아서 애정결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경우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높으면서 거부적 태도는 낮은 집단으로 자녀에게 민주적으로 대하고, 높은 애정으로 자녀를 수용하면서 적절한 통제를 하는 집단이므로 민주적 수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의 경우 통제적, 거부적 태도는 낮으면서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거나 낮지 않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의 경우 거부적 태도만 높고 나머지 통제적,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비교적 낮아서 거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나타난 4개 군집의 양육태도 수준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양육태도 모두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참조). 마지막으로 군집변인별로 어느 군집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적 태도의 경우 군집 1(애정결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 군집 4(거부 집단), 군집 3(무관심 집단)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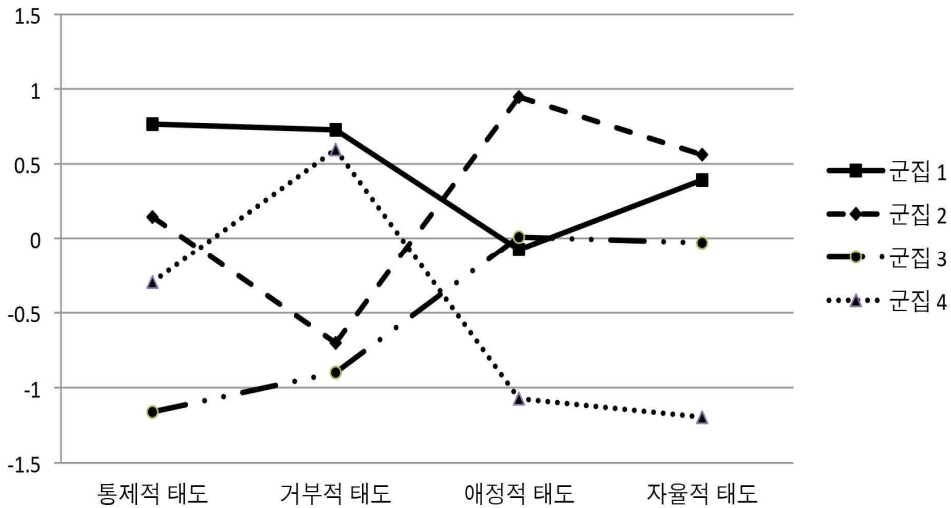
<표 3>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 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Scheffé
	애정결여 집단 (n = 62)	민주적 수용 집단 (n = 57)	무관심 집단 (n = 36)	거부 집단 (n = 46)		
통제적 양육태도	.76(3.50)	.14(3.21)	-1.16(2.61)	-.30(3.01)	53.52***	3 < 4 < 2 < 1
거부적 양육태도	.73(2.78)	-.70(2.13)	-.90(2.05)	.59(2.72)	74.37***	2, 3 < 1, 4
애정적 양육태도	-.08(3.63)	.95(4.08)	.01(3.66)	-1.07(3.19)	72.11***	4 < 1, 3 < 2
자율적 양육태도	.39(3.58)	.56(3.64)	-.03(3.44)	-1.20(3.04)	57.22***	4 < 1, 3 < 2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0, SD= ±1, 괄호 안은 비 표준화된 평균 점수.

***p < .001.

태도의 경우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군집 4(거부 집단)가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와 군집 3(무관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의 경우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군집 3(무관심 집단), 그리고 군집 4(거부 집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버지의 군집별 표준화된 양육태도 점수

2)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화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군집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4가지 양육태도 점수를 이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군집 1에는 87명(43.3%), 군집 2에는 62명(30.8%), 군집 3에는 52명(25.9%)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해 군집 변인인 4개의 어머니 양육태도 점수를 표준화하였고(평균 = 0, 표준편차 = ±1),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의 경우 거부적 태도만 높고, 나머지 통제적 태도와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는 낮아서 거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경우 통제적,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높으면서 거부적 태도는 높거나 낮지 않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대립되는 통제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므로 통제·자율 병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의 경우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높지만 통제적, 거부적 태도는 낮은 집단으로, 아버지 집단과 비교하여 거부적 태도나 통제적 태도가 더욱 낮고 자율적 태도가 특히 높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허용하는 집단이므로 수용과 존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나타난 세 개 군집의 양육태도 수준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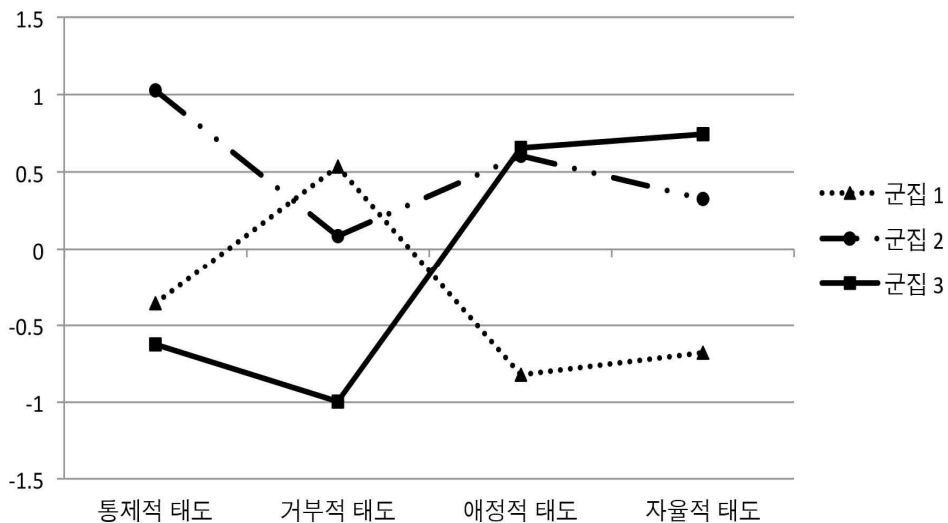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양육태도 모두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참조). 마지막으로 군집변인별로 어느 군집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적 태도의 경우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가 군집 1(거부 집단)과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적 양육태도의 경우 군집 1(거부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태도의 경우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와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군집 1(거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태도의 경우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 군집 1(거부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 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Scheffé
	거부 집단 (n = 87)	통제·자율 병행 집단 (n = 62)	수용과 존중 집단 (n = 52)		
통제적 양육태도	-.36(3.10)	1.03(3.65)	-.62(2.99)	92.80***	1, 3 < 2
거부적 양육태도	.54(2.79)	.08(2.61)	-1.00(2.18)	62.01***	3 < 2 < 1
애정적 양육태도	-.82(3.43)	.60(4.06)	.66(4.08)	106.82***	1 < 2, 3
자율적 양육태도	-.68(3.13)	.33(3.48)	.75(3.63)	60.08***	1 < 2 < 3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0, SD= ±1, 괄호 안은 비 표준화된 평균 점수.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군집별 표준화된 양육태도 점수

3.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아버지 양육태도 군집과 3개의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에 따라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일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우선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 자신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있어서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참조). 어느 군집에서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에는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이 군집 3(무관심 집단)과 군집 4(거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군집 1(애정결여 집단)이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와 군집 3(무관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가 지각한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경우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군집 간 차이 검증 결과 (N = 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Scheffé
	애정결여집단 (n = 62)		민주적수용집단 (n = 57)		무관심 집단 (n = 36)		거부 집단 (n = 46)			
	M	SD	M	SD	M	SD	M	SD		
긍정적 정서표현성	3.56	.42	3.59	.35	3.32	.39	3.13	.38	16.01***	3,4 < 1, 2
부정적 정서표현성	2.66	.45	2.29	.44	2.27	.36	2.53	.43	10.00***	2,3 < 1
자녀의 또래 유능성	3.45	.69	3.39	.58	3.34	.53	3.31	.65	.47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자신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있어서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참조).

〈표 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군집 간 차이 검증 결과 (N = 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Scheffé
	거부 집단 (n = 87)		통제·자율 병행 집단 (n = 62)		수용과 존중 집단 (n = 52)			
	M	SD	M	SD	M	SD		
긍정적 정서표현성	3.54	.35	3.81	.30	3.81	.31	17.59***	1 < 2, 3
부정적 정서표현성	2.68	.36	2.62	.37	2.40	.32	10.36***	3 < 2, 1
자녀의 또래 유능성	3.32	.59	3.40	.70	3.45	.56	.71	

***p < .001.

어느 군집에서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와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군집 1(거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군집 1(거부 집단)과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가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가 지각한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하여 자연 발생적인 부모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모 양육태도 군집을 유형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해보고,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 군집에 따라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특성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군집은 가장 긍정적인 유형의 민주적 수용 집단, 애정이 부족한 애정결여 집단, 자녀 양육에 관여도가 낮은 무관심 집단, 거부적 태도가 특징인 거부 집단의 4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은 가장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수용과 존중 집단, 통제와 자율의 상반된 두 축의 하위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난 통제·자율 병행 집단, 그리고 거부 집단의 3개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 양육태도의 각 군집과 아버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4집단과 어머니 3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집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아버지 군집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 관계와 양육태도의 특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 1의 애정결여 집단은 부모 양육태도 하위 특성 중에서 통제적, 거부적, 자율적 태도는 높고 애정적 태도는 낮은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통제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결여 집단은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자녀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기보다는 높은 정서표현으로 심리적인 통제를 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통제를 받은 자녀는 자아정체감을 갖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박정은, 2002). 비교적 많은 대상(30.84%)이 애정결여 집단에 속했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아버지가 이러한 양육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덕적 교육자로서의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믿는 보수적인 아버지가 많다(이숙현, 2006)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군집 2의 민주적 수용 집단은 애정적, 자율적 태도가 높은 집단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낮았다. 민주적 수용 집단은 부모가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행복감과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Aquilino & Supple, 2001; Cheng & Furnham, 2004, 재인

용),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권영아, 2002; 김길자, 2006; 배문주, 2005).

군집 3의 무관심 집단은 4가지 하위 요인이 모두 비교적 낮은 집단으로 무관심한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이러한 무관심 집단의 아버지는 정서표현성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정서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논의는 어려우나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일반적인 정서표현 경향성도 낮다는 결과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거나 사랑을 느끼는 롤 모델이 되어 주지 못하여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녀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이영환, 2008; 허영림, 2006)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김지영(1997)은 자녀의 정서 불안의 주원인이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힘들어 할 때 아동을 돌보고 놀아주며 어머니와의 심리적인 융합을 풀어주고 분리개별화를 돕는 대상으로 아버지(Mahler, 1975)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양과 함께 정서적인 친밀감이 필요하다.

군집 4의 거부 집단은 거부적 태도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서 민주적 수용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 집단의 아버지는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가장 낮았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비교적 높았다. 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표현하는 사람의 욕구나 상대방의 약점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부적 태도와 같은 비합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Kilpatrick, Bissonette, & Rusbult, 2002)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아버지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높은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거부적인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양육을 소홀히 하며 자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진숙, 2007), 그 원인으로는 아버지의 직업 여건, 아내 또는 자녀와의 관계, 삶의 만족도, 일 중심과 성취 지향적인 사고(김미정, 2010; 이미아, 2012; 이영환, 2008; 허영림, 2006)등 여러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원인으로는 파악될 수 없지만, 거부적인 아버지가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높이고 자녀와 애정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 운영이 자유로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자녀와 함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가족 놀이 프로그램과 실제적인 자녀 양육방법이나 아버지의 신념이 변화될 수 있는 부모교육 등이 포함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태도 각 군집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 1의 거부 집단은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장 낮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었다는 손상희(201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유아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갖게 하며(우수경, 정영숙, 2003),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아에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Seligman, 2007; Turner & Harris, 1984). 그러므로 거부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보일 수 있다(Buschgens et al., 2010)는 것이다. 다른 군집에 비하여 많은 수의 어머니(43.5%)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하는데 심

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어머니의 발달사에 따른 성격특성, 부모와의 애착관계 경험,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관련되어 있다(김혜순, 2014; 이강이, 채진영, 2009; 전춘애, 박성연, 1996; Belsky, 1984; Goldberg, 1990). 그러므로 자녀양육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심리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군집 2의 통제·애정 병행 집단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를 모두 보이는 경우로써, 애정을 주면서도 때로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허용적으로 대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시하며 제한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 2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행목표가 높은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즉 평소에는 허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평가와 높은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가 높은 포부수준을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부지런히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배민정, 정윤경, 201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군집 3의 수용과 존중집단은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매우 높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장 낮았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수용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정서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손상희, 2013; 송아람, 2006; Seligman, 2002)와 일치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원만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보인다(김정은, 신유림, 2015).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자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부모양육태도 군집에 나타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부모집단으로 민주적 수용 집단과 수용과 존중 집단이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고, 거부집단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일반적인 정서표현 경향성이 정적, 부적의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에게도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김송자, 2002; 배민정 2008; Denham, 1989; Rohner, 1991)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표현성에 관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 양육태도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훈육이나 태도가 일관성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지각한다는 김진아와 한귀례(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최종순(2003)은 자기에적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이 높고 지배성, 간섭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기중심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인 부모는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과하게 표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시대적 배경에서는 최고를 지향하는 경쟁적인 양육태도나 신념을 가진 부모가 많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이

러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정서표현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임미옥, 2006), 다시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특징적인 것은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양육태도에서는 애정결여 집단이 제일 높았고 무관심 집단이 제일 낮았다. 어머니 양육태도에서는 통제·자율 병행 집단이 가장 높았고 거부 집단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가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최정혜(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강압적인 외부통제는 자녀로부터 즉각적인 복종은 얻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자기통제를 방해하고 때로는 반항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신영아 2007; Lepper, 1983). 또한 아동은 부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전숙영, 2007), 부모의 정서에 따라서 통제수위가 상황마다 달라진다면 자녀는 더욱 더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일관성 있게 대할 때 자녀는 불안감이 적고 낮은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이다(김기예, 2006; 박법실, 1987). 자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 통제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발생적인 부모 양육태도 군집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각 군집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교성은 상관관계가 낮고(박두미,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지 못한다(손혜련, 1996)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선희, 2015; 이진희, 2013)는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 군집에서도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양육태도 유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모의 정서표현에서 높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나타났으므로, 부모의 정서표현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래 유능성에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또래관계 관리전략이나 중개감독, 조연행동 등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작용하여(노은선, 2010) 양육태도의 영향이 감소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측정했기 때문에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한다면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 군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또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에서 아버지 64.6%, 어머니 53.3%가 고학력이고 안정된 직업군에 속해있으므로 자녀에게 풍부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물리적 환경이 풍부하고 학습도구가 다양한 경우, 이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또래집단에서 놀이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며 또래 유능성이 높아진다(이수화, 2011). 따라서 다양한 탐색활동경험은 유아가 교육기관의 수업활동에서 유능성을 발휘하여 교사의 평가를 높이고, 전체적인 또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양문정, 2014) 연구도 있지만,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면 또래관계에서 주도성 및 인기가 많고(박범실, 1987; 김정아, 2010)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김정신, 1999; 신명숙, 2007)는 선행연구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각 군집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임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되거나 또는 여러 유아를 동시에 평가하는 양적 부담감으로 인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올바른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신뢰성 높은 측정을 위하여 담임교사의 평가로만 측정하기 보다는 부모나 보조교사의 평가, 관찰 등을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측정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군집을 나누어 특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접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편중성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어느 정도 표현되는가에 대한 비교평가로 이루어졌으므로 정서의 유형, 적절성, 강도, 적대감, 분노 등을 포함한 구체적 정서표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관해서는 교사의 경력 등을 포함하여 역량평가가 먼저 이루어지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군집분석은 추후 확인적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각 군집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운숙, 이성희 (201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5(2), 101-119.
- 권연희 (2013).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15-238.
- 권영아 (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2015).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의

-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에 (2006).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능력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상호작용.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길자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 (2011). 한국과 인도네시아 부모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충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2010).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고윤희 (2013).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2), 27-51.
- 김송자 (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7). 유아 정서능력과 어머니 정서반응태도에 기초한 또래 유능성 모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사논문.
- 김이영 (2014).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36-153.
- 김정신 (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10).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신유림 (201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및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219-237.
- 김지영 (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불안수준과 대처방식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2007, 3). **대상관계이론의 이해**. 한국예술치료학회 월례학술발표회 포스터발표 논문, 대구.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혜순 (2014).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7-49.
- 김희정 (2012).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은선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두미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임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서표현성과 유아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유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은, 남은영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89-103.
- 박정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사논문.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성, 기질,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359-382.
- 박재윤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345-362.
-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정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정, 정윤경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59-174.
- 서혜린, 이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손상희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상희, 유연옥, 최성열 (201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매개로. **아동교육**, 23(3), 347-363.

- 손혜련 (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아람 (200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동적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하나 (2006).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3(3), 39-55.
- 신명숙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아 (2007).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아동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문정 (2014).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33-48.
- 우수경 (2002). 아버지의 정서표현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6(2), 95-112.
- 우수경, 정영숙 (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99-119.
- 윤운성, 정정옥 (2003). **영아·유아·아동 발달심리**. 서울: 교육아카데미.
- 윤정원 (201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불안정간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아 (2012). 정서, 행동장애연구: 효과적인 ADHD 아동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281-310.
- 이선희 (2015).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대처방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화 (2011).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2006). 생산적 남성의 아버지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150.
-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41-63.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

과 권리, 12(2), 189-210.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승, 오성심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11(1), 1-15.**
- 이지원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적 및 소극적 반응 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2008).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 (2013).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외로움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1), 57-80.**
- 이혜련, 최보가 (2002). 학령 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 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 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임미옥 (2006). 부모의 정서표현 및 자녀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전춘애, 박성연 (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전혜경 (2014).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지능과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효선, (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1976). 가정교육의 의미. **새가정, 245, 34-37.**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125.**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조유진 (201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군집과 아동의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 개인내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소재,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2), 286-307.**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 상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239-264.**
- 채진영, 이강이 (2009).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4), 95-114.**
- 최정혜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유아교**

육학논집, 19(5), 55-71.

- 최종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영 (2015).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와 정서표현갈등, 대인불안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민 (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Aquilino, W. S., & Supple, A. J. (2001). Long-term effects on parenting practices during adolescence on well-being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2(3), 289-308.
- Asher, S., Renshaw, P.,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Moore & C. Cooper (Eds.), *The young child* (pp. 137-158). Washington, DC: NAEYC.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2.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 Burleson, B. R., & Kunkel, A. (2002). Parental and peer contributions to the emotional support skills of the child: From whom do children learn to express support?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2), 81-97.
- Buschgens, C. J. M., van Aken, M. A. G., Swinkels, S. H. N., Ormel, J., Verhulst, F. C., & Buitelaar, J. K. (2010). Externalizing behaviors in preadolescents: Familial risk to externalizing behaviors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7), 567-575.
- Chen, X., Rubin, K. H., & Li, B. (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 663-681.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4), 715-728.
- Denham, S. A. (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3), 368-376.
- Dunsmore, J. C., & Karn, M. A.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117-138.

- Eisenberg, N., Fabes, R. A., Berns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Greenberg, J. R., & Stephen, R. M.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판 1999).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I. G. Gri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ermann, H. (1997).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eacher language to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 children in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early childhood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Publishing.
- Kilpatrick, S. D., Bissonette, V. L., & Rusbult, C. E. (2002). Empathic accuracy and accommodative behavior among newly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9*(4), 369-393.
- Lepper, M. R. (1983). Extrinsic reward and intrinsic motivation: Implications for the classroom. In J. M. Levine & M. C. Wang (Eds.),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s: Implications for learning* (pp. 281-317). Hillsdale m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hler, M. S., Pine, F., & Bergme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Y: Basic Books.
- Parker, A. E. (2006). *Parental soci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everyday coping and display rule knowled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NC.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3), 245-260.
- Rohner, R. P. (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NY: Sage Publication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384.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Y: Free Press.
- Seligman, M. (2007). *The optimistic child*, NY: Houghton Mifflin.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Turner, P. H., & Harris, M. B. (1984). Parental attitude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1), 105-113.

논문투고 : 15.10.15
수정원고접수 : 16.02.11
최종게재결정 : 16.04.10